

“

고수를 찾아서 ...

”

재미있는 무술 이야기

황범하 KBS 교양국 프로듀서



일러스트 | 신창우

1년 전 쯤으로 기억되는데 방송에서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다. KBS 2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인간극장>이라는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일요일 집에서 쉬던 중 케이블채널로 방송되던 재방송을 본 것이었다. 내가 본 그 프로그램은 무술을 익히는 어느 태권청년에 대한 이야기였다. 부제는 ‘고수를 찾아서...’ 였고 제목 그대로, 태권도 유단자인 주인공 청년이 우리나라 각종 무술고수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청하고 고수들의 무예실력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내용 중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무술 고수들이 진검승부하듯 서로의 무예를 겨루는 장면들도 있어서 정말 흥미진진했다. 상대방에게 커다란 부상을 입힐 만큼 격렬하게 대련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해진 각본 없이 자기 무술의 자존심을 걸고 서로의 무공을 겨루는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런 무술도 다 있구나 싶은 낯선 무술도 있었다. 각 무술마다 독특한 비장의 무예들이 소개될 때마다 저런 무술은 한 번 배워두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렇게 무술을 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로봇만화영화를 보고 나서 날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된 어린 아이 같은 심정이 되는 걸 느꼈다.

생각해 보니 그런 소망이 늘 있어 왔다. 어린 시절 이소룡이 묘한 기합소리를 내면서 휘두르는 쌍절곤 묘기에 얼마나 열광했던가? 그때 그 시절, 나를 비롯한 남자아이들은 쌍절곤 돌려대다가 머리에 알밤생기는 게 다반사였다. 80년대 격동의 시절, 대학 다닐 때에는 백골단과 최루탄에 쫓기는 학우들을 보면서 무협지에서나 등장하는 초절정의 무공을 가지고 악의 무리인 사복경찰들을 일거에 무찌르는 상상을 하기도 하였다.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각박해지고 살벌해진 세상, 뉴스를 보면 어디선가 납치사건이 일어나고 폭행당하고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요즘 세상에 무술은 정말 필요한 삶의 기술이 되어가는 것 같다.

‘고수를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화면 속 고수들이 구사하는 신기한 무예를 한 번 배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그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었다. 저 무술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디

이 글을 쓴 황범하는 1991년에 KBS에 입사했으며 그동안 《생방송 여성》《문화가 산책》《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등을 제작했다. 현재 《낭독의 발견》《파워인터뷰》를 제작하고 있다.

에서 배울 수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수련을 하게 되는지 등등.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무예고수들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무술에 관한 책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든다. 엄청난 격파력을 지닌 합기도 고수, 공격해 오는 상대방의 신체 일부만 잡으면 즉시 제압하는 60대의 무술인, 몸을 살짝 비틀기만 할 뿐인데도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호리호리한 체격의 관장님 등... 어떻게 저 무술들을 다 익혔는지, 내 조건에 맞는 무술은 무엇인지, 나도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는지 기쁘게 해주는 정보가 담겨 있는 책, 그런 책 한 번 읽고 싶지 않을까?

요즘처럼 몸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시대에 분명 대중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대중들의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화를 보더라도 무술을 소재로 한 영화는 많다. 그만큼 사람들은 '무술'을 '멋진 그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다.

최근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 <역도산>이 개봉되었고, 역시 전설적인 무술인 최영의를 소재로 한 영화 <바람의 파이터>가 발표되었었으며, 좀 황당한 스토리이긴 했지만 <아라한 장풍대작전>, <화산고> 같은 영화들이 많은 관심 속에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었다.

이소룡은 영원한 우상이 되었고 황비홍 영화 속 무술장면은 황홀하다. 그 영화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술을 익히고 싶다는 소망을 강하게 가졌을 것이다. 무술에는 늘 그런 당김, 끌림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술고수를 꿈꾼다. 다만 그 방법을 잘 몰라 이내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현실이 이렇고 생활이 바쁘는데 저런 무술을 익히는 게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멋진 무술을 익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자극하는 책이 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내 경우를 들어보자. 독일 외무장관 요시카 피셔가 쓴 책 <나는 달린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나도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이 50이 넘은, 120킬로그램이 넘게 나가던 거구, 그것도 아주 바쁘기 이를 데 없는 정치인도 달리기를 시작하고

마침내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을 때 나도 자극을 받은 것이다. 그 결과 마라톤 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40,50분 정도는 뛰어다니는 내가 될 수 있었다.

대학생 시절 고시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그 재미없는 고시책에 몰두해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힘을 주던 책이 하나 있었다. 바로 선배 고시합격생들이 쓴 합격체험수기였다. 지금도 그런 책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목마저 똑같은지는 모르겠다.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체험수기 책의 제목은 이거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결국 적성에 안 맞는 고시공부는 그만두었지만 목표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에 지금 다시 읽어도 그 책을 제법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고시공부 그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재미있었다. 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그 책은 읽기에 언제나 반가운 책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무술고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들도 예전엔 허약한 약골이었거나 겁많은 소년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도전했고 이뤄냈다. 그 과정에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다. 마침내 무술고수가 된 그들의 앞선 경험에서 추출된 정보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픈 욕구를 갖게 되지 않을까? 꼭 무술을 익힐 의지가 없더라도 각 무술마다 비장의 무예가 있을 것이고, 그 비술들의 파괴력이나 특징, 그 무예들을 연마한 고수들의 삶의 이야기들은 누가 읽더라도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무술사의 야사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 일종의 계보 같은 것도 흥미롭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힘든 수련을 이겨낸 고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적인 교훈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몸을 강하게 만들고 정신을 수련해 온 무술고수들과 그 길이 되어주었던 무술이야기! 그에 관한 책이 나온다면 무술이야기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고 싶은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